



4면  
서학예술마을의 숨겨진  
관광콘텐츠 찾으러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음 9월 21일) 제26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하늘 · 바다 · 땅길’ 급변하는 ‘미래의 땅’

### 새만금 트라이포트 순항, 시설 · 개발용지 개발 속도 대기업 연이은 투자 협약, 글로벌 투자 중심지 성장

새만금의 일대 도약을 이끌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교통트라이포트(Tri-Port)'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 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모습을 드러 내는 등 새만금이 급변하고 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포함한 주요 SOC는 올해 말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준공에 들어가는 등 한때 터럭거리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만금 내부를 촘촘하게 연결해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동서도로는 새만금 동서 중심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남북도로와 함께 공항 항만, 철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4차로 20.4km에 달하는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규모가 투입됐으며, 새만금 접근성 향상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물론 새만금에 최초로 개통되는 내부 간선도로라는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레저 용지 방향으로 건설되는 남북도로는 '2023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원의 규모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예타면제의 성과를 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규모가 확대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등 전기를 마련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새만금 발전을 위한 견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늦어도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2024년 착공되면, 2027년부터 새만금 신항만으로 관광객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 공사는 기존 2~3만톤급이던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가호안 매

립공사(공정률 96%)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공정률 89%)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총 9개 선석 중 2선석이 먼저 준공돼 새만금 내 물류를 처리할 예정이다. SOC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새만금은 하늘길(국제공항), 바닷길(항만), 땅길(철도)로 연결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갖춘 지역이 돼 대한민국과 전 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반시설뿐 아니라 새만금 내 부개발용지도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발전과 기회를 약속하는 땅, 새만금으로서의 본모습을 차츰 갖춰가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개발면적의 32%(94.3km)를 차지하며, 내부용지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22년 모든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세계로 수출될 계획이다. 방수제는 새만금호수와 농업용지를 구분하며, 내부 도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에는 방수제 55.4km가 이미 완공됐으며, 2021년이 되면 62.1km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된다.

최근 SK와 GS를 비롯한 대기업을 연이은 투자협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산업단지과 잼버리부지도 빠르게 매립,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현재 2개 공구가 조성됐고, 1개 공구가 조성 공사를, 1개 공구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입대용지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2년간, 20여 개사가 입주계약을 맺고, 그 중 14개사가 공사 중에 있어 새만금 산업단지는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아울러,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될 부지의 매립공사도 빠르게 진행돼 현재 39.7%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어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 상반기에는 전체면적 8.8km의 매립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용지조성은 새만금이 뚝배기 되고, 삶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며 "새만금 SOC를 따라 뜨거운 투자 활력이 들게 돼 새만금이 글로벌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출입기자단과 함께 새만금 동서도로 공사현장 및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는 5일 동서(남북)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 · 물류 · 장치산업 연계 '해법찾기'

### 새만금개발청, 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5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여섯 번째 행사로 '새만금 스마트농업 · 물류 · 장치산업 연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개발 용지의 32%에 달하는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항만 · 공항 · 도로 ·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 농업생산과 물류, 스마트 농산업 지원을 위한 장치산업 간 연계 개발을 강화해 상승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생산, 물류유통, 장치산업 관점에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충남대학교 정선욱 교수는 새만금 특성을 고려한 재배작목, 대규모 스마트 팜(지능형 농장) 기업 및 농업자본 유치, 인력육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간척지 농업기 연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백승우 교수는 새만금의 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을 통해 산지 · 운송물류 기반 시설 구축과 새만금 중심 수출 계열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에스애틀리연구소장은 '스마트 팜 소재 · 장비 산업기술 전망 및 육성방향'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융합 스마트 팜 모델 개발과 스마트 해수농업을 위한 작물재배 체계 연

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촌진흥청 흥영기 농업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경숙 팀장, (유)로즈밸리 정병두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한재욱 스마트팜사업부장이 참여해 새만금에 맞는 농업생산 방식, 대 · 중 · 소기업 간 상생협업 체계, 농산물 유통 · 시스템 구축 표준화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수립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산 · 학 · 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듣게 돼 새만금 개발방향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대표 농생명 클러스터(협력지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도, 상수관로 정밀조사 확대

전북도는 도민 물 복지 실현과 누수 저감을 통한 상수도 경영개선을 목표로 내년도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상수도 유출 및 적수사고 등 노후관로에 대한 먹는 물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지하매설물인 관로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1년 추가 신규대상 9개 시군에 노후관로 1,077km에 18억원을 투자, 노후화된 관로진단, 관망 및 송 · 배수관로 현황분석, 관 상태 평가(표본조사, 내시경조사)를 실시해 향후 환경부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받을 계획이다.

당초 환경부 방침에 따르면 2021년 시 지역 착수 후 2022년 군 지역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 할 예정이었으나, 전북도의 지속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2021년 2개 시 지역(군산, 김제) 외에 7개 군 지역을 추가 확정분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2022년에는 순창군 지역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착수해 도내 전 시군에 대한 노후관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역점 추진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4,953억, 2017~2024년(14개 시군)),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988억, 2020~2022년(14개 시군)), 농어촌 지역 내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352억, 2021년(10개 시군))을 실시함으로써, 급수 취약지역에 단수사고를 예방하고 누수 절감으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복지국장은 "도내 상수관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관로를 정비함으로써 각 가정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축! 전주매일 창간

희망의 빛을 밝히는 따뜻한 은행

아름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고객님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는  
따뜻한 은행,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1588 - 4477 www.jbbank.co.kr

전북은행